

SBR, 중국 반덤핑판정 영향 미미!

타이어용 수급 장기호조 힘입어 ... 장기적으로는 수급밸런스 불투명

중국이 SBR(Styrene Butadiene Rubber)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나 일본 및 한국기업들은 당분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및 일본의 중국 수출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수급도 세계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및 일본기업들은 중국수출이 감소하겠지만 중국 수출량을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상무성은 최근 일본, 한국,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SBR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국내기업의 잠정덤핑세율은 현대석유화학 19%, 금호석유화학 10%, 기타 27%이며, 러시아기업도 46%에서 16%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일본기업의 잠정 덤핑관세율은 Zeon 29%, JSR 13%, Asahi Kasei(旭化成) 0%, 기타 일본기업 33%이다.

중국의 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2002년 3월19일 SBR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통상 1년이나 2003년에 들어 반년 정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곧바로 잠정결정을 내렸다.

해당품목은 SBR 중 초기형상의 미가공 SBR, 초기형상의 유첨(油添) SBR, 기타 초기형상 SBR 및 Carboxyl Group SBR이다.

일본은 2001년 중국에 약 1만5000톤의 SBR을 수출했는데, 덤핑 해당품목은 1만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 전체의 SBR 수출량은 2002년 SBR Solid가 약 13만톤으로, 중국수출은 극히 소량에 불과한 상태이다. 일본 국내출하와 합한 SBR Solid 총출하량 40만톤에 비하면 중국 수출량은 매우 미미하다.

특히, SBR 수급은 타이어 시장 활황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중국 수출량을 국내시장 및 해외로 충분히 전가할 수 있는 상태로 가동률 등에 대한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덤핑 판정에서 제외된 Asahi Kasei(旭化成)는 물론 금호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 일본 JSR은 중국 수출이 SBR 판매량의 10% 미만에 지나지 않고 세율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수익에 미칠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Zeon은 잠정덤핑판정을 받은 세율로 중국수출은 어려워지겠지만 동남아시아나 일본 내수판매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대응에 나서지 않은 Sumitomo Chemical(住友化學)을 제외한 JSR, Zeon, Asahi Kasei 3사는 큰 수량은 아니나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당분간은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종결정까지 계속 정당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05/07>